

중앙아시아 부하라 유대인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정체성: 디아스포라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최아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의 부하라 유대인들은 미국, 이스라엘 등지로 대규모 국외이주를 하였고, 우즈베키스탄, 미국, 이스라엘이라는 3각 구도로 이루어진 초국가적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중심은 이스라엘에 본부를 둔 세계부하라 유대인 총회다. 역사적 모국이자 유대 종교와 전통의 중심지인 이스라엘의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의 부하라 유대인 커뮤니티는 디아스포라로서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주도하며, 출신국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유대인의 다수를 이루는 아슈케나지 유대인과는 다른 '동방' 유대인, '아시아' 유대인으로서의 부하라 유대인의 자기 인식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부하라 유대인이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추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짚어 보고, 이들 사이에 형성된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가 부하라 유대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디아스포라 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부하라 유대인,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 미디어, 초국가적 네트워크, 정체성

I. 머리말

유대인들은 고전적 디아스포라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오래전 강제로 모국에서 분리되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존재하면서 국가들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주와 정착을 거듭하는 것이 이들의 반복되는 삶의 방식이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거주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존재하면서 회당(Synagogue)과 자치단체인 카할(Kahal)을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국민국가의 경계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무역, 상업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생존하는 초국경적인 생활방식에 매우 익숙한 민족이기도 하다.

* 본 연구는 2022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근대 이후 디아스포라로 거주하던 유럽 국가에서 유대인들에게 동등한 시민적 권리가 부여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어느 정도 철폐되면서 유대인은 ‘희생자(victim)’로서의 디아스포라가 아닌 언제라도 자기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이주할 수 있는 이주의 주체가 되었다. 이로써 유대인 이주는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보편적인 이주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과 이들의 이주의 성격과 패턴에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오랜 세월 유대인의 종교와 역사 인식에서 추상적인 기억으로만 자리했던 ‘모국’이 지리적인 실체로 등장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고, 거주국과 모국을 가로지르는 초국가적인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대인 이주의 흐름에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된 사건은 탈냉전의 국제 질서를 심화시키면서 국제정치적 지각변동을 가져온 소비에트 연방의 와해였다. 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 전반까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대규모 귀환 이주의 시기를 경험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소련 구성 공화국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이 대거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했고, 독일과 이스라엘은 구소련에 거주하던 자국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귀환 정책을 펼쳤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대략 160만 명의 구소련 유대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이주를 감행했다. 이 중 99만 8,000명은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32만 6,000명, 독일로 22만 4,000명이 떠났다(Gitelman, 2016: 23). 이스라엘 건국 이래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된 구소련 유대인들의 대규모 유입은 이스라엘의 인구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구소련 유대인, 이른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Russian speaking Jews)’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구소련 출신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약 290만 명으로 추산된다(Ханин, 2013: 7). 이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공화국, 이스라엘, 미국, 독일, 캐나다 등지에 거주하면서 초국가적인 연대를 이루며 살고 있다. 부하라 유대인(Bukharan Jews)은 이러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구소련 유대인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이다. 부하라 유대인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도시 부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유대인들을 통칭한다. ‘부하라 유

대인’이라는 명칭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지역에 16세기에 부하라 칸국(The Khanate of Bukhara)이 수립되어 1920년까지 존속했던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되었다.¹ 부하라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스로일(исроил)’ 또는 ‘야후디(яхуди)’라고 불렀다. 제정러시아와 소련 정부는 부하라 유대인을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Ashkenazi Jews)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토착유대인(туземные евре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부하라 유대인들은 동유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소련 지역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대교 종교 의례를 행하고, 전통문화, 언어와 외양도 이들과는 다른 이란계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유대인의 하위 종족 그룹이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외로 이주하여 소련 와해 이후 대규모 이주를 경험했다. 1989년 소련 인구조사 당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한 부하라 유대인의 수는 2만 8,369명이었으나 2000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9,653명이 거주하고 있다.² 이주의 절대적 규모로 본다면 우즈베크인이나 키르기스인 등 중앙아시아의 명목 민족들보다 크지 않지만, 사실상 민족 그룹 대다수가 국외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전 세계 부하라 유대인의 수는 약 2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의 3대 축은 이스라엘, 미국, 우즈베키스탄이다. 현재 부하라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약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미국에는 6만 명이 거주하는데 그중 5만 명이 뉴욕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또는 미국으로 이주한 부하라 유대인들은 출신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그리고 역사적 모국이면

¹ 부하라 칸국에서 18세기 후반 망기트 부족이 권력을 쟁취하면서 칭기스칸의 직계 혈통의 통치가 끝나게 되었고 이로써 부하라 칸국은 부하라 아미르국(The Emirate of Bukhara)으로 불리게 되었다.

²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부하라 유대인의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하기에 정확히 몇 명이 거주하는지 밝히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2000년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Open Society Institute)가 발간한 <우즈베키스탄 민족 아틀라스>(Этнический атлас Узбекистана)에 따르면 부하라 유대인의 수는 9653명이었다(Этнический атлас Узбекистана, 2002: 90). 2000년 이후로도 부하라 유대인들의 국외 이주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총 인구수는 대략 9000명 미만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서 정착국인 이스라엘이라는 3각 구도로 이루어진 초국가적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 또는 이주자들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초국가주의적 접근방식은 현대의 국제이주가 과거에 비교해서 모국과 거주국 간의 쌍방향적인 인구이동이며, 이주민이 거주국에서 정착하면서도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에 주목한다(윤인진, 2012: 22). 한편 부하라 유대인의 초국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에는 출신국, 거주국 외에도 역사적 모국이자, 유대종교의 중심지이며 귀환 이주의 목적지인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다.

이 글은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부하라 유대인이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추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짚어 보고, 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우즈베키스탄, 가장 탄탄하고 조직적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한 미국, 그리고 유대 정체성의 뿌리인 역사적 모국인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 형성된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가 부하라 유대인의 초국경적 공동체와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Bukharian Jewish Congress of the USA and Canada)가 뉴욕에서 러시아어와 영어로 발행하는 주간지 『부하라 타임스(The Bukharian Times)』의 기사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이스라엘의 국경일과 주요 사건이 있었던 날의 신문들과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 까지 발행된 신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II. 부하라 유대인의 이주와 정착의 지형: 중앙아시아, 이스라엘, 미국

1. 중앙아시아: 디아스포라의 모판

중앙아시아에 최초로 유대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와 어떠한 경로로 정착했는가에 대해서는 문헌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중앙아시아 실크로

드의 고대 도시 메르브(Merw) 등지에서 AD 1세기에서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인의 이름이 적힌 점토판과 납골 용기가 발견되었고(Емельяненко et al., 2018: 447), 5세기에 제작된 탈무드에 메르브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나오므로 이들이 이곳에 정착했던 시기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기 시작한 정확한 연대를 확정할 수 없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즈베크인’이라 불리는 투르크계 민족이 당도한 16세기 이전부터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거주해 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하라 유대인들은 우즈베크인들이 다수인 땅에 소수 민족으로 존재하지만, 자신들을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크인들보다 먼저 정착한 ‘토착’민족이라고 여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부하라 유대인들은 2개에서 4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부호리(бухори)’라 불리는 타지크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가 섞인 형태의 유대-타지크어는 이들의 민족어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고, 히브리어는 종교의식을 수행하거나 유대교 율법서인 토라(Torah)를 읽을 때 사용했지만 구어로서 기능하지는 않았다. 오랜 세월 공존한 우즈베크인들의 언어도 이들의 일상 언어의 일부를 차지했으며, 20세기 초 중앙아시아에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현재까지 러시아어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부하라,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등 중앙아시아의 주요 도시는 부하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거주지였다. 유대인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우즈베크인들이 모여 거주하는 마할라(Маҳалла)³에 섞여서 거주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마할라에서 살았다. 일반적으로 우즈베크인들이 모여 사는 마할라의 중심에는 모스크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마할라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고, 자치기구가 유대인 묘지와 회당을 관리하고, 가정의례를 논의하고 자선 활동을 담당했다. 이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실크 염색을 비롯한 수공업과 상업, 중개업 등 무슬림들이 천시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했다. 당시 제정러시아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는 달리 법에 따른 거

³ 마할라는 우즈베크인들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인들의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다. 마할라는 단순히 행정적인 단위로만 기능하지 않았고,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이슬람과 전통적 윤리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자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주지 제한을 겪지 않았지만,⁴ 이슬람법에 따라 이교도인 ‘딤미(dhimmi)’로 살면서 인두세(jizyah)를 바치며 여러 면에서 법적 제한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유대인의 집과 상점은 무슬림들의 그것보다 높지 않아야 하고, 회당을 수리할 수는 있어도 새로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도 경험해야 했다 (Cooper, 2012: 20).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받는 가운데 겉으로만 개종하고, 여전히 몰래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인 ‘찰라(Чалла)’들도 생겨났다.

한편 19세기 초부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부하라 유대인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무역 활동을 벌여 부를 축적해 갔다. 부하라 유대인 성인 인구의 30% 이상이 미국, 유럽, 러시아, 터키, 이란, 팔레스타인과 무역에 종사할 정도로 교역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⁵ 특히 제정러시아의 서부와 남부 지역에 주로 거주했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부하라 유대인의 교역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정러시아는 부하라 유대인이 가진 이러한 교역 네트워크 등 경제적인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들의 상업 활동과 관련한 제한을 철폐하며 무슬림과 동등한 민족으로 대우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거주하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비해 상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중앙아시아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이주하면서 각기 다른 두 유대인 공동체는 19세기 말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조우하게 되었다(Каганович, 2016: 88).

소비에트 시기, 특히 2차대전 시기에 소련의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거주하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그러나 부하라 유대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세속화되어 있고, 소비에트 문화에 영향을 받아 유대교의 전통을 대부분 상실한 ‘유럽’ 유대인들을 ‘절반’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각기 다른 회당을 중심으로

⁴ 19세기 당시 제정러시아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제국의 남부 및 남서부에 위치한 15개 주와 10개의 폴란드 왕국의 주가 속한 유대인 거주 한정지역(Черта оседлости, The Pale of Settlement)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제국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다(최아영, 2012: 173-202).

⁵ <http://ujew.com.ua/istoriya-buharskih-evreev-chast-ii> Бухарские евреи при царской власти 1865–1917(검색일 2021. 12. 11.).

생활하면서 사실상 서로 섞이지 않은 채로 공존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 정부의 반(反)종교정책에 따른 통제가 사실상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보다 종교 행위에 대한 통제와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부하라 유대인들은 소련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유대교에 따른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과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며,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심지어 공산당원조차도 부친의 장례식에서 유대인의 기도문 카디쉬(Kaddish)를 읽는 일이 드물지 않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고발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Емельяненко, 2019: 43). 이러한 종교성의 차이는 현재까지도 부하라 유대인과 구소련 지역 아슈케나지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사실 부하라 유대인의 문화는 동족인 아슈케나지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중앙아시아인들의 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 부하라 유대인들이 신년(Rosh Hashanah)에 먹는 둥근 할라(challah)빵은 중앙아시아인이 주식으로 먹는 둥근 형태의 빵인 리표시카(лепешка)와 거의 흡사하다. 또한 안식일 음식으로 중앙아시아인들의 전통음식인 플로프(плов)의 일종인 오시 사보(оши саво)를 먹는다(Емельяненко, 2012: 86). 심지어 소련 정부는 1920년대 중앙아시아에 국경을 획정하면서 부하라 유대인들을 유대교를 믿는 타지크인들로 분류하기도 했다(Zeev, 2014: 322). 우즈베크인, 타지크인들의 전통음식인 샤푸마콤(шашмаком)은 부하라 유대인들이 주로 연주하며 발전시켰고, 미국,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 이들이 소개한 샤푸마콤은 ‘부하라 유대인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중앙아시아’의 민속문화로 현지에서 수용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문화적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의 거주 지역의 경계는 명확했고, 유대인이 우즈베크인이나 타지크인과 결혼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Gitelman, 1991: 31). 수 세기를 중앙아시아 민족들과 공존했지만, 부하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존재했다. 이것은 1970년대 초 소련 정부가 한시적으로 국외 이주를 허용하자 부하라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한 심각한 경제난과 국민국가 건설 도정에서 부상한 우즈베크 민족주의와 이슬람의 부활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던 부하라 유대인들의 국외이주를 촉발했고, 잔존한 유대인 공동체도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 가면서 갈수록 열악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 내전이 발발한 타지키스탄에서는 부하라 유대인이 대거 해외로 이주하여 인구 수가 1만 5,000명에서 2,000명으로 급감했다(Cooper, 2012: 169). 이들의 거주 지역별 공동체 규모가 유동적이고, 정확한 수를 집계할 수 없는 까닭은 이들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인구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없는 상태로 국외 이주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유대인 공동체는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부하라 유대인들의 중심지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이동했다.

2. 이스라엘: 역사적 모국

중앙아시아 부하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18세기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중앙아시아로 파견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다른 유대인 공동체들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한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에 유대교의 경전과 관습을 가르치면서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주를 권유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세기 말부터 1914년 사이 최초의 이주가 시작되어 당시 부하라 유대인 약 1,500명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Rzehalt, 2008: 40). 이들의 이주 동기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의 이주처럼 시온주의 이상에 따른 것이었다기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에서 기인했고, 이주의 규모도 작았다. 이렇게 1890년대 초부터 예루살렘에 ‘슈후나트 레호베트 하-부하림(Шухунат Реховед ха-бухарим)’이라는 중앙아시아 부하라 유대인 거주 지역이 생겨났다.

중앙아시아에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된 후부터 1920년대 말까지 각 민족의 문화 자치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 부하라 유대인들도 다른 소비에트 구성 민족과 마찬가지로, 민족어로 교육하는 학교, 신문, 극장, 박물관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소련 정부가 종교를 비롯하여 비러시아계 민족의 문화 자치를 가능하게 했던 기반에 대한 대대적인 파괴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유대교, 유대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20년대와 1930년대 중반 사이 부하라 유대인 약 4,000명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이스라엘로 이주했다(Крылов, 2016: 72).

한편 1970년부터 소련 정부는 자국 거주 유대인들에게 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이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었다. 그러자 약 1만 명의 부하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떠났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미국이 냉전 상황에서 소련 유대인에 대한 이민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소련 유대인들과 그 가족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게 되자, 이주의 방향은 급격하게 미국으로 바뀌었다.⁶

이렇게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소련을 떠난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으로 향했다.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되자 미국 정부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이 시행되는 소련에서 유대인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위협에 취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 자격 부여를 중단하며 직계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렇듯 1980년대 말 미국의 소련 유대인 이민 제한 정책과 고르바초프의 국외 이주 제한 철폐, 그리고 뒤이은 소련의 해체, 유대기구(JAFI: Jewish Agency For Israel)와 같은 이스라엘의 귀환 이주 지원 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구소련 유대인들의 대규모 이스라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주가 절정에 달했던 1990년과 1991년 사이 소련 유대인 약 40만 명이 철의 장막을 통과하여 떠났는데 그중

표 1 소련 유대인의 국외 이주, 1970~1988 (단위: 명)⁷

	이스라엘	미국
1970~1978	132,000	42,000
1979~1988	33,000	84,000

출처: Tolts(2003).

⁶ <http://www.demoscope.ru/weekly/2007/0303/tema01.php>(검색일: 2021. 10. 7.).

⁷ 이 자료의 수치는 부하라 유대인들만이 아닌 전체 소련 유대인의 이주를 보여 주지만, 부하라 유대인들의 이주도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약 83%인 33만 3,000명이 이스라엘로 향했다(Толыш, 2017: 444). 이 시기 이스라엘로 이주한 구소련 유대인의 13%가 중앙아시아 출신이었다(Gitelman, 2016: 15).

현재 이스라엘의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는 예루살렘, 텔아비브, 야포, 브엘세바 등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 존재한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주한 후 모자이크처럼 공존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유대인 공동체들 사이에서 부하라 유대인은 구소련에서 이주한 다수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는 다른 스스로를 중앙아시아 출신의 ‘동방 유대인(Mizrachi Jews)’으로 여긴다. 일반적으로 동방 유대인들은 유럽 출신 유대인에 비해서 디아스포라로 존재하며 쌓아 온 전통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적 의례와 관습을 토대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Ben-Rafael and Yochanan, 2005: 108). 부하라 유대인들은 여타 구소련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송출되는 러시아어 TV 채널, 러시아어 신문 등을 통해 출신국인 중앙아시아의 소식을 접하며 이스라엘의 구소련 유대인 공동체와 소통하지만,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다수인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소련의 유럽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로 지지하는 ‘이스라엘 베이테이누(Yisrael Beiteinu: Israel Our Home)’당과 같은 소위 ‘러시아 출신 이민자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Крыло в, 2016: 74). 이스라엘의 부하라 유대인들은 동방 유대인이나 세파르딴(Sephardim) 출신 초정통파 종교인들의 정당인 샤스(Shas)당을 주로 지지했는데 1973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후 1999년에서 2015년까지 이스라엘의 국회 크네세트(Knesset)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부하라 유대인 암논 코헨(Amnon Kohen)도 샤스당 출신이다. 암논 코헨은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타지키스탄, 이스라엘-카자흐스탄, 이스라엘-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를 이끌면서, 이스라엘과 중앙아시아국가 간의 의원 외교 활동에 집중한 대표적인 부하라 유대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는 이주 이후에도 중앙아시아에서 수세기 동안 정착하여 살면서 일구어 놓은 이들만의 독특한 ‘중앙아시아’ 유대인 전통문화를 유대인 세계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색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부하라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부하라 유대인들을 아우르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된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

회(WCBJ: The World Congress of Bukharian Jews)의 본부가 위치한 곳으로,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있어 종교적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이들의 초국가적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3. 미국: '디아스포라' 활동과 지원의 중심

미국의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는 1920년에서 1930년대에 볼셰비키 혁명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수립된 소비에트 정부를 반대하여 망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19세기 말 중앙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후 미국으로 재이주한 부하라 유대인들의 후손들도 있다(Емельяненко, 2019: 43). 부하라 유대인들의 미국 이주는 1940년에서 1950년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때는 소련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국외 이주를 허용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부하라 유대인들은 소련에서 직접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이스라엘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일반적이다(Baldauf et al., 2008: 113).

1970년대 말부터 부하라 유대인들을 비롯한 소련 유대인들이 난민 지위를 가지고 미국에 유입되면서부터 미국의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유대인 6만 명 중에서 5만 명은 뉴욕에 거주하며 그중 4만 명은 퀸스의 포레스트 힐스(Forest Hills)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포레스트 힐스는 부하라 유대인이 당도하기 전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 주류사회로 진출하면서 떠난 공간을 중앙아시아 유대인들이 넘겨받아 정착을 시작한 것이다.

퀸스 포레스트 힐스의 108번가는 일명 '부하라 브로드웨이'라 불리는 부하라 유대인 집거지의 중심거리다. 이곳에는 이들의 회당뿐 아니라 러시아어와 영어 간판이 즐비한 가운데 코셔 식당, 코셔 상점, 여행사, 약국, 변호사 사무실, 신문사, 러시아어로 출판된 책과 기념품을 파는 서점, 부동산 등이 늘어서 있다. 이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는 우즈베크 전통음식과 러시아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현지 식당과 다른 점은 단지 코셔 인증 마크가 벽에 붙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아시아의 여느 식당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유대인 거리의 한 편에 우즈베크인 등 중아시아 무슬림 이민자들의 명절인 희생절(Eid al-Adha)에 사용되는 의식용 가축 도축을 주문할 수 있는 할랄 식품 상점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포레스트 힐스에 있는 부하라 유대인이 경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 이민자보다 부하라 유대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기도 하고, 이민 시기도 우즈베크인들보다 앞섰기에 경제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퀸스의 포레스트 힐스 지역은 단지 부하라 유대인들의 집거지일 뿐 아니라 우즈베크인, 타지크인 등 중아시아 무슬림 이민자들도 공존하는 독특한 풍광을 가진 공간이다.

에스닉 엔클레이브(ethnic enclave)에 자리한 회당, 모스크와 같은 종교시설, 신문사, 도서관, 각종 식당, 식료품점 등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들은 이민자들이 물리적으로 출신국의 지리적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기억을 매개로 출신국과의 유대를 이어가는 일종의 ‘기억의 장소’이며 이민자 공동체를 거주국 사회와 구별하는 요소로 작동한다(Bruneau, 2010: 38). 부하라 유대인들이 같은 구소련 출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집거하는 뉴욕의 브루클린이 아닌 퀸스에 정착했고, 이들의 기억의 장소에 우즈베크인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부하라 유대인이 이민 사회에서 동족 아슈케나지 유대인들보다 무슬림인 우즈베크인들과 더 밀접한 사회적·경제적인 관계를 맺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하라 유대인들이 구소련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 처음 조우한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진 19세기 말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소련 서부 지역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후방인 중앙아시아로 이송되면서부터 사실상 이들과 본격적으로 공존하기 시작했다. 부하라 유대인들은 그들과 서로 섞이지 않았고 살아서는 회당을, 사망 후에는 묘지도 따로 썼다. 1세기도 채 공존하지 않았던 ‘동족’ 유대인과의 민족적 유대보다는 수 세기에 걸쳐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크인, 타지크인과 함께 축적하고 공유한 ‘중앙아시아인’으로서의 문화적인 유대감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련의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자기 인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홀로코스트를 그들만큼 직접 겪지 않았던

중앙아시아 유대인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⁸

한편 미국으로 이주한 부하라 유대인들의 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1970년대에 미국 등지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는 소련 체제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부하라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미주로 이주하면서 디아스포라의 규모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말부터 미국의 부하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디아스포라 단체를 조직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기관으로 1999년 뉴욕 퀸스에 세워진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1년 후 전 세계의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단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회 설립의 주춧돌이 되었다.

III. 부하라 유대인들의 초국가적 공동체와 다층적 정체성: 디아스포라 신문 『부하라 타임스(*The Bukharian Times*)』 분석

과거 통신 기술, 교통수단의 발전 수준이 낮았던 환경에서 디아스포라가 모국과 단절된 상태로 거주하면서 생산했던 미디어는 이들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와 거주국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에스닉 미디어(ethnic media)는 초국가적 현상이 아닌 종족 현상으로 다루어 왔고, 이것을 이민자의 초국가적 생활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소수였다(민병갑, 2017: 226).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장벽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지면서 모국과의 물리적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모국의 방송매체까지도 거주국에서 접할 수 있게 된 시대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 미디어는 디아스포라, 거주국, 그리고 모국을 이어 주는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며 디아스포라의 초국

⁸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1941년 6월 당시 소련에는 유대인이 428만 명~432만 명 정도 거주했다. 그중 소련의 나치 점령지역인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발트 3국 등지에 소련 유대인의 60%가 넘는 260만 명~270만 명이 거주했다. 이들이 홀로코스트를 직접 겪었고, 이 중 살아남은 유대인의 수는 10만여 명에 불과했다. https://www.yadvashem.org/ru/holocaust/ussr/jews-in-the-occupied-territories.html#narrative_info(검색일 2022. 11. 7.).

가성을 보여 주는 초국가적 미디어로 기능한다(Laguette, 1998: 129). 또한 디아스포라 미디어는 이민자가 출신국을 떠나오면서 물리적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그곳에서 형성했던 개인적·집단적 기억을 일깨워 주면서 출신국과 디아스포라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살펴볼 『부하라 타임스』는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가 2002년부터 발행하는 주간지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온라인 버전도 존재한다. 주로 러시아어로 발행되지만, 일부 칼럼은 영어로도 작성된다. 이미 러시아어를 말하고 읽는 것이 어렵고 영어가 익숙한 차세대 부하라 유대인들을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본사는 뉴욕 퀸스 포레스트 힐스에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부하라 유대인들이 독자층을 이루고 있다. 이 신문은 매호 총 45장 내외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뉴욕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 관련 뉴스, 미국 국내 기사, 이스라엘 및 우즈베키스탄 관련 뉴스와 칼럼, 미국, 캐나다 이외에 유럽과 러시아의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이슈를 다룬 섹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커뮤니티의 중심에 회당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회당에서 있었던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소식도 매주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부하라 유대인의 역사, 언어, 아슈케나지 유대인을 비롯한 다른 유대인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부하라 유대인들의 전통이 특이한 지점, 그리고 비교적 이들과 유사한 세파르딤과 자신들의 문화를 비교한 기사들도 있다(*The Bukbarian Times* 21/04/07).

1. 미국 관련 기사 내용 분석

미국의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지도도 등에 대한 기사들이 있지만, 미국 정치 전반에 대한 기사보다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시의 정책, 뉴욕 시장, 시의회 선거에 대한 기사의 출현 빈도 수가 훨씬 높았다. 특히 2021년 뉴욕시 의회 선거에 우즈베키스탄 출신 부하라 유대인 다비드 아로노프(Давид Аронов)가 출마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동방 유대인들

의 연대로 45년 만에 부하라 유대인 출신 시의원 후보를 만들어 냈다”는 기사를 실었다(*The Bukbarian Times* 21/04/18). 이것은 뉴욕의 부하라 유대인 이민자 공동체가 거주국 사회의 주류 정치 시스템으로 이제 진입하려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미국과 관련된 기사 중에는 바이든 정부가 UN 등 국제기구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슈에 대응하는 행보와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지원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룬다. 미국 유대인의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반면 부하라 유대인을 포함한 러시아계 유대인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구체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 정부 시기에 비해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안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하는 기사도 등장했다(*The Bukbarian Times* 21/04/24). 2017년에는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 대표와 랍비들이 아시아계 미 하원의원을 만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대인을 공격하거나 살해한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테일러 포스 법(Taylor Force Act)을 통과시키도록 로비하는 등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The Bukbarian Times* 17/06/28).

이와 함께 미국 관련 섹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반유대주의이다. 미국 각지의 회당이 습격을 당하고, 워싱턴 소재 한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당시 자행된 총살과 가스실을 재현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보도하고(*The Bukbarian Times* 21/12/29), 전 세계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에 근거한 증오범죄의 30%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The Bukbarian Times* 22/01/26). 특히 반유대주의의 확산과 증오범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러시아 등 세계 유대인 공동체를 다룬 섹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제이기도 했다. 이것은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분위기 확산에 대한 부하라 유대인들의 위기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반유대주의 척결과 이스라엘과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캠페인과 이벤트는 뉴욕의 부하라 유대인들이 미국의 주류 유대인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 유대인을 아우르는 보다 확장된 유대인 공동체와 연결되는 매개로 작용한다. 미국

유대인들이 매년 전통적으로 치르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와 이스라엘과의 연대와 지지를 표출하는 시가행진에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가 결성된 1999년부터 부하라 유대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아슈케나짐이 주를 이루는 세계 유대인 총회(World Jewish Congress)의 지도부가 퀸스의 부하라 유대인 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선언한 목표인 ‘반유대주의 척결과 히브리어 회복’에 연대감을 표하기도 한다(*The Bukbarian Times* 21/11/17). 이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부하라 유대인들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는 미국 유대인 사회와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소통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한편 『부하라 타임스』에 부하라 유대인을 제외하고 가장 자주 언급되는 유대인 공동체는 아제르바이잔의 산악유대인(Mountain Jews)들이다. 아제르바이잔에 주로 거주했던 산악유대인들은 부하라 유대인들과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구소련의 아시아계 유대인들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대인들과 협력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단순한 ‘러시아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방유대인’ 정체성을 함께 세워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와 같은 국경일과 관련된 기사가 사실상 실리지 않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에 행한 연설문을 요약한 “민주주의는 미국의 정신이다”라는 제하의 기사만 있을 뿐이었다(*The Bukbarian Times* 21/06/09). 이와 함께 미국의 전통, 역사, 미국인의 문화, 대중문화에 관련된 기사도 사실상 전무하다. 이 신문의 주요 독자층이 미국의 경우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면서 뉴욕 퀸스의 에스닉 엔클레이브에 집거하는 이민 1세대이고, 이 신문이 처음부터 미국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부하라 유대인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기획된 초국가적 미디어라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스라엘 관련 기사 내용 분석

『부하라 타임스』에는 미국의 국경일과는 달리 유대인의 종교 절기이자 이스

라엘의 국경일인 유월절(Pesach), 신년, 대속죄일(Yom Kippur), 초막절(Sukkot) 등에는 빠짐없이 특집 기사가 실린다. 이러한 기념일들이 지닌 종교적,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중양아시아의 유대인 학자, 랍비들의 글들이 장문의 칼럼 형식으로 게재된다. 또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사는 가난한 동포 부하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모금을 진행하자”는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회 의장이자 이스라엘 국적의 사업가인 레프 레바예프(Лев Леваев)의 메시지도 등장한다.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향성은 이들의 고유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제2성전이 함락된 AD 70년부터 이스라엘 건국까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던 상태를 ‘추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갈루트(Galut)’라고 부른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종교적 중심지를 상실하고, 결국은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마저 사라진 별을 받는 상태로 여겼다(최아영, 2019: 111). 건국 당시부터 ‘유대인의 국가’라고 천명한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지를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했고, 세계 각국의 유대인 사회는 거주국 사회의 환경이 유대인에게 부정적인 환경으로 변하거나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전개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존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크게 강화시킨다(최창모, 2016: 22).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지향성은 유럽-아시아 유대인 총회(Euro-Asian Jewish Congress) 산하 유럽-아시아 유대인 연구소(Institute for Euro-Asian Jewish Studies)가 2019년, 2020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실시한 유대인의 정체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응답자의 69%가 이스라엘에 연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아무런 연대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에 불과했다.⁹

⁹ <https://eajc.org/en/research/>(검색일 2022. 11. 1.).

한편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회 의장이자 정통파 유대교를 따르는 독실한 신자인 레바예프가 『부하라 타임스』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은 대부분 토라, 유대교의 현인들과 랍비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레바예프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언제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동유럽 유대인은 이디시어를, 우리 부하라 유대인은 부호리를 사용하지만,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듣는 기도가 있다. ‘슈마 이스라엘(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것은 토라이다.”라며 유대인의 정체성은 유대교와 토라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The Bukbarian Times* 22/03/30). 이렇게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있던 공간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근원을 이룬다.

이러한 종교적인 측면의 연대감 외에도 역사적 모국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감과 지향성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방문의 결과로 형성된 감정적인 연대에서도 기인함을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하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미국과 중앙아시아 유대인들의 친족들이 다수 거주한다. 이러한 감정적인 유대는 사마르칸트에서 뉴욕으로 이주하여 현재 『부하라 타임스』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라파엘 네탈로프(Рафаэль Некталов)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까운 나라, 20세기 초 이스라엘로 건너간 내 조상의 뼈가 묻힌 곳, 내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 1991년부터 30번 넘게 간 곳이며 설사 내 친척이 한 사람도 안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서 가까운 나라”라고 언급하며 “뉴욕에 사는 부하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휴가 때마다 몇 번이고 찾아가는 곳,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뼈를 묻기 위해 가는 나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찾아가는 나라”라고 답했다(*The Bukbarian Times* 16/12/14).

이와 함께 이스라엘로의 이주, 즉 알리야 이슈도 이스라엘과 관련한 섹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타글리트(Taglit)’와 같은 귀환권(Right of Return)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이스라엘 방문 프로그램의 재개에 대한 정보(*The Bukbarian Times* 21/05/05)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대거 입국한 유대인 이

주자가 국적만 취득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경된 이주자 지원 내용 등이 기사의 내용을 이룬다(*The Bukbarian Times* 22/05/11). 이처럼 이스라엘은 부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다음 이주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조부모 중 1명만 유대인이어도 이주하여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환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귀환 자격이 증명된다면 이주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주 후 초기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친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연정 구성 등과 같은 국내 정치에 대한 기사도 시기별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 중에서는 종교적 성향이 강한 세파르딤 계열 정당인 샤스당과 관련한 기사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2021년 예루살렘에서 부하라 유대인 랍비들이 총회를 가질 당시에도 이스라엘 정당 중에서는 샤스당 대표만이 초청받았다(*The Bukbarian Times* 21/06/23). 이처럼 구소련 출신 러시아어 사용자 유대인들의 절대다수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인 상황에서 자신의 ‘아시아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강조하려는 시도는 앞서 언급한 아제르바이잔 산악 유대인과의 협력과 연대와 같은 기사 등 이 신문의 여러 지면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 당시 참전한 모로코 출신 유대인이 이른바 폴란드 출신 등의 ‘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차별과 모욕에 대한 편지 내용을 포함하는 『친애하는 팔레스타인에게. 1948년 전쟁의 사회사(*Dear Palestine. A Social History of the 1948 War*)』라는 책을 지면에 소개하기도 한다(*The Bukbarian Times* 21/07/21). 『부하라 타임스』가 다루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은 주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첨단기술, 국방력, 신약 개발, 코로나 대처 능력 등 이스라엘의 강점에 주목하지만, 현재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전히 목격할 수 있는 아슈케나짐과 세파르딤 간의 갈등을 다루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 우즈베키스탄 관련 기사 내용 분석

『부하라 타임스』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비중 있게 보도되는 내용은 중앙아시아, 주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 과거에 부하라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국

가들과 관련되어 있다. 유대교의 절기, 이스라엘 국경일과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우즈베크인, 타지크인들의 고유 민속 명절인 노루즈(Nowruz)이다. 노루즈는 우즈베크인, 타지크인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인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상징이다. 뉴욕의 부하라 유대인들은 뉴욕의 우즈베키스탄 총영사관, ‘마할라 USA’와 같은 우즈베크 이민자 단체와 함께 노루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하라, 사마르칸트 등 우즈베키스탄을 수식할 때 ‘피를 나눈, 혈연의, 친근한’의 의미를 가진 러시아어 형용사 “родной”가 종종 사용된다. 그렇듯 우즈베키스탄에서 명목민족인 우즈베크인보다도 더 긴 거주 역사를 가진 부하라 유대인들은 이주 이전의 삶에서 획득한 문화적 양식을 이주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즈베키스탄 땅에 가지는 애착과 향수는 지면에 실린 여러 인터뷰에서도 확인된다.

부하라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기분 좋고 따뜻한 감정이 생겨난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 있다. 여러 감정이 섞여 있다. 부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이 형성된 요람이다.(*The Bukbarian Times* 17/06/28)

우리는 우즈베크인들과 천 년 넘는 세월을 함께 살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 삶을 일구었다.(*The Bukbarian Times* 21/08/18)

노루즈와 함께 『부하라 타임스』가 중앙아시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전승 기념일이다. 후방이었던 중앙아시아에 거주했던 부하라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서부 지역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는 달리 홀로코스트의 직접적인 참화는 피할 수 있었다. 소련의 2차대전 참전과 승전은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그리고 구소련 국가의 ‘유럽’ 유대인과 연결하는 기제로 작동하며 이들의 집단 정체성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이다. 2016년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 산하 부하라 향우회는 부하라에 2차대전에 참전한 부하라 유대인을 기리는 조형물과 전사한 부하라 유대인 병사 500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을 만들었다(*The Bukbarian Times* 22/03/16).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당시 후방이었던 중앙아시아로 소련 서부 지역에 거주하던 아슈케나지 유대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들이 이주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렇게 “재앙을 당한 ‘유럽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 준 나라”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전형적인 수사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이스라엘의 국립 홀로코스트 추모기념관 야드바셈(Yad Vashem)이 아카이브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우즈베키스탄이 전쟁 기간 중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구했는지를 공동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훈 레토릭은 “우리의 형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을 구했다”는 것으로 부하라 유대인들에게도 발견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 미르지요예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전승 기념일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했다. 기존의 우즈베키스탄의 2차대전 관련 박물관 전시의 테마는 후방에서 전선을 지원하고, 전사자들을 애도하는 ‘희생, 추모’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20년 대통령령에 따라 타슈켄트에 전승 75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된 대규모의 승리공원과 국립 영광 박물관(Shon-Sharaf Muzeyi)에는 이전과 다르게 각종 무기, 탱크, 전투기가 전시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주요 서사는 ‘승전, 영웅,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부하라 타임스』의 2022년 전승 기념일 관련 기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디아스포라 부하라 유대인들에게서도 감지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후방에 편안히 숨어 있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피난 온 많은 민족들을 품어 주었다. 올해 이스라엘은 독립 74주년을 맞이했다. 이 승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이다.(*The Bukharian Times* 22/05/18)

이와 함께 2021년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는 이스라엘의 참전용사협회와 국방부에 2차대전에 참전하여 나치즘과 싸우고 무공을 쌓은 부하라 유대인들과 중앙아시아에서 이들을 기리기 위한 서적을 출판하거나 박물관을 세운 사람들의 공적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하는 부하라 유대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The Bukharian Times* 21/08/04). 이

시상식은 SNS를 통해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소련의 붉은 군대가 강제노동수용소와 게토(ghetto)에서 해방한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현대의 국제 정치 구도에서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기억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단단하게 연대하고 있다.¹⁰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스라엘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존재하는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중요한 현대사의 기억은 그들의 출신국의 과거사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같은 소련의 유대인이었지만 무력하게 희생당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돕기 위해 나섰고 투쟁했던 유대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이제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회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는 우즈베키스탄 독립 30주년 기념식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행사도 재미 우즈베크인 단체들과 공동으로 조직함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부하라 유대인 총회도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당시 교육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지원했는데, 협정을 맺은 공과대학교도 이스라엘에서도 부하라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홀론(Holon)시에 소재한 대학이었다. 이처럼 부하라 유대인들은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자처하며 양국을 잇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하라 타임스』에 ‘민간외교(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라는 고정된 지면을 통해서 부하라 유대인들이 우즈베키스탄-미국, 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 관계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조직하고, 캠페인과 기부 행사를 진행하는 활동들이 소개된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에 뉴욕의 『부하라 타임스』의 편집장에게 이러한 활동을 치하하며 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이는 재외동포와 디아스포라를

¹⁰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전 총리도 외무부 장관 시절 라브로프(Сергей Лавров)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소련군이 2차대전 중 해방한 유대인 중에는 부다페스트 게토에 갇혀 있던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아버지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The Bukharian Times* 21/ 09/22).

국가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한 미르지요예프 정권이 자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풀어 감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정착한 부하라 유대인들이 유용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정권이 출범한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공무원 기강 확립, 뇌물수수 근절, 경제 개방 등 일련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사화되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결단력 있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사회에 우즈베키스탄을 개방했다. 정치범 블랙리스트에서 수천 명을 삭제했고, 대중매체도 이전보다 자유로워지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자료도 보내고 있고 정치적인 테마의 토크쇼도 방송한다. 우즈베키스탄에 해빙기가 도래했다.(*The Bukharian Times* 18/02/21)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의 변화는 해외 부하라 유대인 사업가들로 하여금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2018년 부하라 유대인 이스라엘 정주 150주년,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아서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회 의장 레바예프를 단장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대표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정부 요인들과 기업 대표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사절단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했을 정도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방문에 커다란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레바예프를 제외하고는 미국,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해외에서 획득한 자본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인 초국가적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부하라 유대인과 우즈베키스탄 등 출신국 사이에 행해지는 초국가적인 행위를 포르테스(Alejandro Portes) 등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주의적 활동을 제도화 수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정리한 모델에 따라 살펴보면(Portes et al., 1999: 222)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경우 정치나 경제 분야의 초국가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유의미한 현상이 파악되지 않

는다. 그러나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 행해지는 초국가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민자 센터에서 모국의 민속 음악 연주자 초청 공연, 신도들의 모국 방문과 같은 포르테스가 범주화한 제도화 수준이 낮은 초국가적 활동과 함께 정기적인 대사관 주최 문화행사 등 제도화 수준이 높은 초국가적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하라 타임스』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제이자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간의 초국가적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있는 유대인 묘지를 정비하고, 그곳에 남아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지원하는 일이다. 기실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의 모체가 된 것도 부하라, 사마르칸트, 히바, 타슈켄트 등 우즈베키스탄의 각 출신 도시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향우회다. 이 향우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온 이래로 방치된 유대인들의 묘지를 보수하고, 묘역을 가꾸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부하라 유대인들이 계속 해외로 이주하고 있어 사실상 공동체가 소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이 ‘돌판에 새겨진 역사’라고 여기는 가족과 조상들의 무덤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미국에서 부하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만든 중앙아시아 여행상품에는 항상 묘지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부하라 유대인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부하라 유대인 총회는 중앙아시아에 남아 있는 부하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랍비를 파송하고, 유대인 묘지를 보존하고,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Matzah)을 비롯하여 절기마다 현지 유대인 공동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IV. 맺음말

부하라 유대인은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 중앙아시아의 3각 구도에서 이주와 정착을 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국외 이주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규

모가 커지면서 이스라엘, 중앙아시아, 미국과 유럽을 잇는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뉴욕에서 생겨난 부하라 유대인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지역 향우회로부터 시작되어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발전했고, 이후 이스라엘에서 태동한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회라는 부하라 유대인 글로벌 네트워크로 통합되었다. 네트워크가 구동되는 데는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있는 소수 리더의 역할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부하라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고, 부유하지 않은 출신국에서 이주했기 때문에 사회 및 경제적 자본이 미미하여 유의미한 초국가적 경제활동을 할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소련의 아슈케나지 유대인에 비해 소련 체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에 보존할 수 있었던 이들만의 종교적 전통은 출신국에 남겨진 조상들의 묘지 보수, 현지 유대인 공동체 지원이라는 다소 한정적이지만 부하라 유대인들의 초국가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2대 축은 이스라엘과 미국이다. 이스라엘이 유대적 전통을 보존하는 일을 맡는다면, 미국은 본토 밖에서 전 세계 유대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전형권, 2004: 204). 전 세계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도 이와 같은 구도 안에 있다.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회의 본부가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며 디아스포라를 지원하는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은 부하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대교 전통이 발원한 이스라엘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부하라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귀환 이주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반유대주의 부상과 같은 거주국 사회의 환경변화,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안보 이슈와 이에 조용하는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동포 귀환 정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를 추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산의 시간을 살아온 부하라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국가 만들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라 유대인이 중앙아시아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과 직접 공유하는 역사적인 집단기억은 사실상 없다.

부하라 유대인들이 중앙아시아의 '소수 민족'으로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의 대

부분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삶에서 배태되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적인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우즈베키스탄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초국가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기 위한 재이주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를 떠나서 이스라엘, 미국에 정착한 부하라 유대인은 여전히 ‘중앙아시아’ 유대인의 생활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러시아인의 문화를 공유하는 부분은 적다. 이들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유대 문화가 혼합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며 이를 브랜드화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유대인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삶의 거처를 영구적으로 중앙아시아 밖으로 옮긴 ‘떠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즈베키스탄과 미국, 우즈베키스탄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기를 추구한다.

이렇게 부하라 유대인은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사실상 두 개의 모국을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매년 유월절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를 외치게 했던 부하라 유대인의 상상 속의 모국은 지리적 실체로 나타나 부하라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가장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반면 조상의 무덤이 남아 있고, 지난 수 세기를 살아온 역사의 흔적을 지키고 기리고 보호해야 하는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이들의 역사적 모국이 되어 가고 있다.

투고일: 2022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2년 10월 29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30일

참고문헌

- 민병갑. 2017. “재미 한인 이민자의 한국과의 초국가적 사회문화 유대관계.” 윤인진 편.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이론과 실태』, 213-244. 성남: 북코리아.
- 윤인진. 2012.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제 28호, 7-47.
- 전형권. 2004. “글로벌 민족네트워크와 각국의 동포정책: 인도와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

- 으로.” 『한국동북아논총』 Vol. 9 No. 33, 191-218.
- 최아영. 2012. “러시아제국의 반유대주의: 1880년대 초 남부 지역 포그롬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23호, 173-202.
- _____. 2019.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러시아제국의 시온주의 운동과 유대인 귀환, 1882-1914.”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러시아와 세계정치』, 71-118. 사회평론아카데미.
- 최창모. 2016.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관계 분석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 10권 제2호, 7-45.
- Baldauf, Ingeborg, Moshe Gammer, and Loy Thomas. 2008. *Bukharan Jews in the 20th Century. History, Experience and Narration*. Reichert Verlag Wiesbaden.
- Ben-Rafael, Eliezer and Peres Yochanan. 2005. *Is Israel One? Religion,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Confounded*. Leiden, Boston: Brill.
- Bruneau, Michel. 2010. “Diasporas, Transnational Spaces and Communities.” In Rainer Bauböck and Thomas Faist, eds.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Cooper, Alanna E. 2012. *Bukharan Jews and the Dynamics of Global Juda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Gitelman, Zvi. 1991. “Ethnic Identity and Ethnic Relations among the Jews of the Non-European USSR.” *Ethnic and Racial Studies* 14(1), 24-54.
- _____. 2016. *The New Jewish Diaspora. Russian-Speaking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Germany*.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 Laguerre, Michel S. 1998. *Diasporic Citizenship: Haitian Americans in Transnational America*. London: Palgrave Macmillan.
- Portes Alejandro, Guarnizo Luis E., and Landolt Patricia. 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217-237.
- Rzehalt, Lutz. 2008. “The Linguistic Challenge: Bukharian Jews and Soviet Language Policy.” In Ingeborg Baldauf, Moshe Gammer, and Loy Thomas Loy, eds. *Bukharan Jews in the 20th century: History, Experience and Narration*. Wiesbaden: Reichert Verlag.

- Tolts, Mark. 2003. "Demography of the Jews in the Former Soviet Union: Yesterday and Today." In Zvi Gitelman, M. Glants, and M. I. Goldman, eds. *Jewish Life after the USS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Zeev, Levin. 2014. "From Local to Global: Transformations of Bukharan Jewish Community Organ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Nationalities Papers* 42(2), 321-335.
- Емельяненко. Т. Г. 2012. "Плов в традиционной ритуальной кухне бухарских евреев."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5, 84-90.
- _____. 2019. "Бухарские евреи Нью-Йорка: Особенности адаптации."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й форум* 43, 41-60.
- Емельяненко, Т. Г. and . Носенко-Штейн, Е. Э. 2018. *Евреи*. Москва: Наука.
- Ильхамов. Алишер. 2002. *Этнический атлас Узбекистана*. Институт "Открытое Общество."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 Узбекистан.
- Каганович, Альберт. 2016. *Друзья поневоле: Россия и бухарские евреи, 1800-1917*.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 Крылов А. В. 2016. "Еврейско-бухарская община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Израиля." *Евреи Европы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традиц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История, языки, литература.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апреля 2016 г.*, Отв. ред. М. О. Мельцин; Петербургский институт иудаики. СПб, 71-78.
- Тольц, Марк. 2017. *История ев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России. От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до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осква: Гешарим.
- Ханин, Владимир (Зеэв). 2013. "Введение в тему. Израильяне, "русские" и русские израильяне: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новых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х ев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Диаспоры* 2, 6-19.
- The Bukbarian Times* No. 774, 2016. 12. 8.-14.
- The Bukbarian Times* No. 802, 2017. 6. 22.-28.
- The Bukbarian Times* No. 835, 2018. 2. 15.-21.
- The Bukbarian Times* No. 999, 2021. 4. 1.-7.
- The Bukbarian Times* No. 1000, 2021. 4. 8.-14.
- The Bukbarian Times* No. 1002, 2021. 4. 22.-28.
- The Bukbarian Times* No. 1003, 2021, 4. 29.-5. 5.

The Bukbarian Times No. 1008, 2021. 6. 3.-9.

The Bukbarian Times No. 1010, 2021. 6. 17.-23.

The Bukbarian Times No. 1014, 2021. 7. 15.-21.

The Bukbarian Times No. 1016, 2021. 7. 29.-8. 4.

The Bukbarian Times No. 1018, 2021. 8. 12.-18.

The Bukbarian Times No. 1023, 2021. 9. 16.-22.

The Bukbarian Times No. 1031, 2021. 11. 11.-17.

The Bukbarian Times No. 1037, 2021. 12. 23.-29.

The Bukbarian Times No. 1041, 2022. 1. 20.-26.

The Bukbarian Times No. 1048, 2022. 3. 10.-16.

The Bukbarian Times No. 1050, 2022. 3. 24.-30.

The Bukbarian Times No. 1056, 2022. 5. 5.-11.

The Bukbarian Times No. 1057, 2022. 5. 12.-18.

<http://www.demoscope.ru/weekly/2007/0303/tema01.php>(검색일 2021. 10. 7.).

<https://eajc.org/en/research/>(검색일 2022. 11. 1.).

<http://ujew.com.ua/istoriya-buharskih-evreev-chast-ii> Бухарские евреи при царской власти 1865 – 1917(검색일 2021. 12. 11.).

https://www.yadvashem.org/ru/holocaust/ussr/jews-in-the-occupied-territories.html#narrative_info(검색일 2022. 11. 7.).

Abstract

Transnational Network and Identity of Bukharan Jews: Focusing on Analysis of Diasporic Media

A-Young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USSR, Bukharan (Bukharian) Jews of Central Asia emigrated mainly to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and diaspora communities have participated in transnational networks based on cultural exchange and social relations. The centerpiece of the Bukharan Jewish diaspora network is the World Congress of Bukharian Jews, headquartered in Israel. The community of Bukharan Jews in Israel, the historical homeland and the center of Jewish religion and culture, plays a central and significant role in diaspora networks. The Bukharan Jewish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systematically implement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the life of transnational communities of the Bukharan Jewry. The fact that Bukharan Jews are a branch of Persian Jewry in Central Asia strengthens their identity as Mizrahi Jews whose cultural heritage is different from that of Ashkenazi Jew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Jews in the former USSR. The present work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of Bukharan Jews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nsnational connection between diaspora communities on formation of Bukharan Jewish identity through analysis of diasporic media.

Keywords | Bukharan Jews, Central Asia, Diasporic Media, Transnational Network, Identity